

2017년 5월 17일, 구좌읍 덕천리 김차순 씨 덕, 이현정 조사.  
 김차순(여, 1943년생, 구좌읍 덕천리)

- 줄거리: 제주도에선 집안의 조상으로 모시는 도깨비가 있다. 이런 집안에서는 음식을 장만하면, 가장 먼저 이 도깨비 조상에게 올리도록 되어 있다.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도깨비 조상이 집에 불을 붙여 자신을 정성껏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응징을 가한다는 이야기이다.

**[조사자]** 동네에 도체비가 나온덴 합니까? 덕천에, 옛날에.

**[제보자]** 아니 그 집안에, 도체비가 모신 집이 옛날엔 잊어났주게. 경 허니깐 그 어디 만약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두 경 허는 딴 경 허주만은, 어디 장 난디 뿔 죽을 썰 간덴 허나 허벅에 질영 덩겨났주, 사둔이면.

**[조사자]** 풋죽예?

**[제보자]** 팔죽. 경 허면은 요게 허벅에다가 질영 갈 때, 도체비 모신 집에는 그걸 우이로 걸영 놔두구 지영 나가야 뉘주게. 경 헌디 요걸 미리 떠놓지 안행 우허지 않으니 까 불나났덴 허주게. 경 허기 때문에이 도체비를.

견디 옛날은 그런 사연이 잊어났지만은 이젠 그런 거 었어.

이젠 그런 거 모신 디도 었고이. 그런 상황도 었고 이제는.

- 핵심어 : 도체비, 덕천, 사둔, 팔죽, 도체비 조상, 음식, 도깨비